

## 배급사와 극장주, 3D 안경 비용을 둘러싼 갈등

2011. 11. 14

### Overview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Sony Pictures Entertainment)가 그동안 미국 극장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3D 안경 비용 보전 조치'를 철회하고, 2012년 5월부터 3D 안경을 유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 Briefing

#### 소니, 2012년 5월부터 미국 내 극장용 3D 안경 유료 공급 예정

-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미국 극장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그 동안 극장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3D 안경 비용 보전 조치'를 오는 2012년 5월부터 중단한다고 통보했음
  - 현재까지 1회용 3D 안경 비용은 영화 배급사가 부담하고 있었으나, 소니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임
  - 배급사가 3D 안경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될 경우, 안경은 관객에게 유료로 판매되거나 비용을 극장주 측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음
  - 이에 대해 이미 3D 영화관 설비 확충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왔다고 생각하는 극장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관객들은 3D 영화 관람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음
- 미국극장주연합회인 NATO(National Association of Theater Owners)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소니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은 극장과 소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함
  - 극장주들은 이미 3D 상영관 전환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3D 안경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세계 최대 극장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리갈 엔터테인먼트(Regal Entertainment)는 소니가 이번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3D 상영관 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함
- 반면에, 미국 메이저 영화 배급사들은 이미 블록버스터 3D 대작 영화의 경우 1편당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sup>1)</sup>의 3D 안경 비용을 부담<sup>2)</sup>하고 있다며 소니의 '3D 안경

1) 예산과 개봉 규모가 작은 영화들의 경우 3D 안경 비용은 150~200만 달러 가량임

2) 영국,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관객이 3D 안경을 구매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2D 영화 대비 편당 3~4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는 3D 영화 관람료에 안경 값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

비용 보전 조치'를 지지하고 나섬

- 소니의 뒤를 이어 디즈니(Disney), 폭스(Fox)를 포함한 메이저 배급사들은 극장용 3D 안경 유료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들 영화 배급사 진영은 극장들이 이미 3D 영화 관람료를 인상해 받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 전환해도 관객 유치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내다봄
  - 극장용 3D 안경 자체는 비싸지 않으며, 관람객 1명당 약 50센트의 안경 구입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o 실제 영화사 측에서는 극장용 3D 안경의 낮은 회수율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미국 내 대부분의 극장은 리얼디(RealD)의 플라스틱 3D 안경<sup>3)</sup>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은 상영관 외부에 3D 안경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으나, 관람객 상당수가 무료로 배포한 3D 안경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음
  - 돌비(Dolby)의 경우 고가의 전자식 3D 안경<sup>4)</sup>을 채택하고 있어, 영화관이 관객에게 지급한 3D 안경을 다시 회수해 세척한 후 다음 상영에 재활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Analysis

3D 영화를 극장에서 보기 위해서는 상영 설비를 3D 장비로 전환해야 하고, 관객에게 3D 안경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는 극장의 3D화가 급격히 진행된 2009년부터 이슈가 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영화관 설비는 극장주 측에서 부담하고, 3D 안경 비용은 배급사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왔다. 그러나 소니픽처스가 이번에 3D 안경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통보함으로써 극장주와 배급사의 힘겨루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3D 안경 비용을 둘러싼 논쟁은 과거에도 한차례 일어났다. 2009년 3월 폭스(Fox)가 자사의 3D 영화 '아이스 에이지 3' 배급에서 3D 안경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극장주들의 거센 반발에 못 이겨 이를 철회한 적이 있다. 극장주들의 승리로 끝났던 첫 번째 갈등에 이어, 이번에는 소니픽처스가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한 번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D 안경 비용이 50센트 정도로 저렴한 편이지만, 이미 상당 수 관객들은 3D 영화관의 입장료 인상에 거부감을 표시한 바 있기 때문에 극장주와 배급사들이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객들이 3D 안경 구입비를 부담하게 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으며 이에 따라 영화관들은 무료로 3D 안경을 제공하고 있음

3) 패시브(Passive) 편광 안경 방식으로 내부에 전자 장비 없이 플라스틱으로만 제작되어 생산원가가 매우 저렴

4) 액티브 셔터(Active Shutter) 방식으로 내부에 전자 장치와 충전지가 들어가 고가임

## ■ Source

1. HollywoodReporter, 'Sony to Stop Paying for 3D Glasses in May 2012', 2011. 9. 27  
<http://www.hollywoodreporter.com/news/sony-refusing-pay-3d-glasses-240837>